

한국과 일본 축제의 백제복식 재현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제와 사천왕사왔소축제의 행렬복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production of Baekje Costumes Exhibited
in Korean and Japanese Festivals: Focusing on Parade Costumes
from Baekje Cultural and Sacheonwangsawasso Festivals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 사 마 유 리
부교수 김 은 정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oo Ree Ma

Associate Professor : Eun J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축제복식으로 활용 가능한
백제복식 디자인 제시 |
| II. 축제복식의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한국과 일본 축제의 백제복식
재현 양상 및 원형과의 비교분석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more appropriate and accurate festival costume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n various reproduced costumes and a period review of traditional festival costumes. In particular, the comparative analysis examined festival costumes which appeared in Korean and Japanese festival parades during the Baekje Period. The Baekje Cultural and Sacheonwangsawasso Festivals were examined. A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field research and digital restorative techniques were used in the study. The reproduction patterns of Baekje costumes from both festivals were compared with original Baekje costumes, demonstrating several differences in the configuration, material, color, and shape of the costumes in addition to the way they were worn.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aekje costumes used in Festivals we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King's Costume, Queen's Costume, and Government Official's Costume. Dress sketches and 3D illustrations also have been presented.

주제어(Key Words) : 축제복식(festival costume), 백제복식(Baekje costume), 재현복식(reproduction costume)

Corresponding Author : Eun Jung K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47 Fax: +82-62-530-1349 E-mail: kimej0234@hanmail.net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일부임.

I. 서론

오늘날 축제는 전통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제, 예술제, 민속제 등을 비롯한 문화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문화 예술을 창조하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축제의 기능은 다양성과 전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축제 중에서도 역사적 인물이나 특수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는 축제관람자들에게 단순히 축제의 소재가 되는 역사적 사실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풍습, 건축, 언어, 색채, 복식, 머리모양,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 특히 축제에서 보여지는 축제복식은 행사 참여자가 축제에서 공연을 하거나 맡은 역할을 수행할 때 착용하는 복식으로, 축제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축제의 행렬에서 나타나는 축제복식은 축제 주제의 이해를 돕고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 외에도 당시의 문화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처럼 축제에서 착용하는 재현복식은 그 시대의 예술, 문화와 사회 구조, 생활양식, 경제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귀중한 문화사적 자료가 되므로 면밀한 고증을 통한 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제에서 활용된 전통복식은 축제 주제의 효과적 표현에 중요한 요소이며 반드시 고증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축제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이유로 제대로 재현된 축제복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축제의 다양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축제복식의 고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축제의 소재가 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복식이 무분별하게 착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당시대의 복식을 축제복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사극 열풍으로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매스 미디어에서 표현된 전통복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제복식에 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축제에서 나타난 전통복식을 고찰한 연구 성과가 부족한 이유는 사극복식 연구와 달리 축제에 직접 참가하여 복식을 조사해야 하고, 비교분석을 위해서 동일한 시대를 소재로 하는 축제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축제복식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축제복식을 고찰한 소수의 선행연구들(권순정, 2001; 김은정, 2003, 2005; 이희현, 1999; 홍정민, 2002)이 축제복식에 관한 연구의 근간을 제공했고, 부분적으로나마 축제복식 연구의 접근방향과 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축제복식이 아

닌 외국의 축제복식을 대상으로 하거나, 축제복식이 해당되는 시대의 복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증하고 재현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동시대 배경인 축제에서 축제복식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축제에 활용된 전통복식에 대한 시대적인 검토 및 다양한 재현복식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적합하고 정확한 축제복식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특히 축제의 배경이 백제시대인 한국과 일본의 축제 행렬에서 나타난 축제복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백제문화제(百濟文化祭)와 사천왕사왔소(四天王寺ウツ)축제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시대적 범주인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축제의 주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축제와 일본축제 사이에는 백제문화와 아스카문화의 상호교류, 즉 시공간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문화적·역사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문화의 전면 개방 등으로 한·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대적 배경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축제와 일본축제의 행렬복식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축제복식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현장조사, 디지털복원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문헌고찰은 한국과 일본의 축제복식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선행연구와 고문헌, 도록, 단행본, 축제관련 브로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장조사는 한국의 백제문화제와 일본의 사천왕사왔소축제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영상자료와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고, 축제 관계자 및 복식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하여 축제복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백제복식 디자인을 디지털 복원에 의한 3D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II. 축제복식의 이론적 배경

1. 축제복식의 개념

축제복식은 축제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성격을 축제관람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축제참여자가 입는 복식 전반을 총칭한다. 이러한 축제복식은 축제관람자로 하여금 축제참여자 역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도우며, 다른 축제요소들과의 조화를 통하여 축제의 극적인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축제복식은 표현적 기능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도구적 기능

을 수행해야 하는 복식으로, 일반 의상과는 다르게 시각적인 효과의 표현이 주가 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한 분야의 공연 예술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축제복식이 공연예술복식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무대의상(조은호, 1999)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무대의상이란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꾸미는 이야기극을 그 내용으로 구성하는 무대예술, 즉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퍼포먼스 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의상이다(김현숙, 1995). 이와 같은 무대의상이 축제복식으로 축제 속의 인물이 사는 시대나 장소, 인물의 사회적 지위, 환경, 연령, 성별, 직업, 인물의 관계나 감정 상태 까지도 반영하여 축제 속 등장인물들의 중요도, 심리상태, 분위기 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복식은 극본이나 대본을 바탕으로 축제라는 무대 공간에서 착용되어지는 복식이기 때문에 극의 주제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진다. 축제참여자가 착용한 축제복식은 색채나 문양을 통해 인물들 간의 상징적 관계를 암시해 주기도 한다. 이는 축제복식이 축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복식과는 달리 축제의 내용을 대변하고, 축제무대에서 축제참여자의 역할을 돕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거나 시각적으로 축제의 내용을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축제복식의 역할과 유형

축제복식의 역할은 축제에 대한 정보 전달, 인물창조, 축제의 주제나 분위기 표현, 축제 스타일의 창출로 분류될 수 있다(김현숙, 1995). 즉 축제복식은 축제의 시대와 장소, 시간, 계절, 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축제관람객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축제의 상황을 축제관람자에게 전달시켜 이해를 돕는 것이다. 축제라는 공간은 현실이라는 커다란 세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으로써, 축제 밖과는 다른 공간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또한 축제복식은 축제 속 축제관계자의 성격, 사회적 지위, 경제력, 계급, 성별, 연령, 민족 등을 표현해 준다. 축제라는 공간 속에서 축제관계자가 등장했을 때, 축제관람객들은 복식만 보고도 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또한 축제복식은 한 개인만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복식의 색상 대비나 실루엣의 강약을 통해 특정 인물을 강조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인물들 간의 관계를 노출시킨다.

다음으로 축제복식은 축제의 주제 또는 개념, 분위기를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축제 프로그램의 주제에 적합한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축제의 특정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축제복식의 색상, 소재, 크기(scale), 질감 등을 활용하여 축제의 전체적인 개념과 분위기를 표현해줄 수 있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복식은 축제의 스타일을 창출하게 한다. 스타일은 크게 사실적인 것과 비사실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적인 스타일은 시대복식처럼 현실에 있는, 또는 있었던 복식들을 그대로 축제에 재현해 내는 것이다. 비사실적인 스타일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의상을 창안해 내는 것이다. 사실주의적인 축제에서는 실생활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대별 복식에 대한 고증이 중요해진다.

축제복식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크게 성격이나 상황, 시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유형 분류에 따른 성격복식이란 말 그대로 축제 프로그램에서의 전통적 배역에 맞추어서 축제 속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복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상황설정에 따른 복식은 시대를 표현하거나 인물의 배경 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복식의 기능보다 분위기나 특정 상황을 표현해주는 복식으로써, 양식화된 표현주의 극의 복식이나 카니발 등의 장식복식으로 볼 수 있다.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복식이란 축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나 지역을 나타내주는 의상으로, 과거의 역사적 복식이나 현재 입혀지고 있는 현대적 복식, 미래적 복식, 지역에 따른 민속복식 등의 국가적 복식 등이 있다(조은호, 1999).

Ⅲ. 한국과 일본 축제의 백제복식 재현 양상 및 원형과의 비교분석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일본의 NPO법인 오사카와소문화교류협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 지역축제의 상호 홍보와 참여, 지속적인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와 그 영향권의 일본 아스카 문화를 조명, 계승하기 위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백제문화제 집행위원회와 왓소축제실행위원회는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상호 지속적인 교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백제문화제와 사천왕사왓소축제 사이에는 백제문화와 아스카문화의 상호교류, 즉 시공간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문화적·역사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백제문화제와 사천왕사왓소축제의 축제복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 백제문화제 백제역사문화행렬의 백제복식 재현양상

백제문화제는 역사성이나 개최횟수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향토축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백제라는 역사문화 배경을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면서 발전해 온 역사문화 축제이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2008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700년 대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54회 백제문화제의 추진목표는 명실상부한 국내·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며, '교류왕국 대백제'의 국가적·문화적 우수성에 대한 재조명을 목표로 하였다. 백제역사문화

행렬은 2008년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행렬단의 구성은 총 1,470명이 참여하여 17개 유닛(unit)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제역사문화행렬의 축제복식은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백제역사문화관의 소품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와 공주시청, 부여군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주관하지만, 백제역사문화행렬의 축제복식은 부여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백제역사문화행렬에서 보이는 신분별 복식은 군왕복에서 서민복에 이르기까지 총 10종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천왕사왓소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으로 선별하여 조사¹⁾·정리하였다.

군왕복은 사비백제의 6대왕인 성왕-위덕왕-혜왕-법왕-무왕-의자왕의 행렬 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착용한 복식의 종류는 동일하나 가장 곁에 입은 포의 색상²⁾, 문양, 치수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중 위덕왕 역할의 축제참여자는 자색(紫色)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된 군왕복 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포에는 길과 소매 전체에 거북이 등 다양한 문양이 금사로 자수되어 있다. 포는 겹으로 구성되었고, 안감 역시 자색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되었다. 총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수구에 길보다 밝은 자주색(紫朱色) 소재로 가선을 돌렸고, 가선에는 모두 금사로 문양이 자수되어 있다. 허리에는 금옥제의 과대(鈎帶)를 하고 있으며, 포 안에는 자주색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된 바지와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두식(頭飾)으로는 인동당초문을 투조하여 만든 금제관식이 달린 자주색 라관(羅冠)을 쓰고 있고, 이식으로 꽃 모양의 화려한 금판 장식과 곡옥이 연결된 수하식(垂下飾) 귀걸이를 하고 있다. 또한 경식은 적색과 청색의 옥구슬이 연결된 목걸이를 하고 있고, 손에는 깃털로 장식된 부채를 들고 있으며, 흑색 가죽 소재의 신을 신었다.

왕비복은 성왕비-위덕왕비-혜왕비-법왕비-의자왕비의 행렬 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왕비는 행렬에서 제외되었다. 축제에서 보이는 왕비복도 군왕복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으로 착용한 축제복식의 종류는 유사하나 가장 곁에 입은 포의 색상, 문양, 치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위덕왕비 역할의 축제참여자가 착용한 포는 적색 공단을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고, 길과 소매 전체에 기하문이 직문되었다. 포는 겹으로 구성되었고, 안감은 분홍색 폴리에스테르로 소재이다. 총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수구에 자주색 소재로 가선을 돌렸고, 가선에는 모두 금사로 문양이 자수되었다. 저고리 아래 치마는 백색·갈색·적색으로 구성된 색동치마의 형태이다. 두식으로는 금제관식이 달린 오라관(烏羅冠)을 쓰고 있으며, 이식으로 금판 장식과 곡옥이 연결된 화려한 수하식 귀걸이를 하고 있다. 경식으로 흑색의 옥구슬이 여러 겹으로 연결된 목걸이를 하였다.

관원 역할의 축제참여자들이 착용한 관원복의 포는 적색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겹으로 구성되었으며 안감도 적색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되었다. 포의 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수구에 적색 소재로 가선을 돌렸으며, 가선에는 잔잔한 꽃문을 직조하거나 은박을 놓기도 하였다. 허리에는 포와 동일한 색상이지만 소재가 다른 대를 매었고, 포 안에 상의는 셔츠나 티셔츠 등을 입고 토황색(土黃色)의 바지를 착용하였다. 관모는 흑색 벨벳으로 제작된 절풍(折風)을 썼으며, 모두 흑색 스웨이드 소재의 목화를 신었다.

2. 사천왕사왓소축제 순행·교류최사의 백제복식 재현양상

오사카 시내에 있는 사천왕사(四天王寺)는 서기 593년에 성덕태자(聖德太子)의 발원으로 백제에서 건축 장인들을 초청해서 건축된 일본의 고대 사원이다. 이는 백제 위덕왕 40년에 해당하며, 백제의 불교가 한창 성행하던 시기이다. 사천왕사는 우리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절이며, 매년 이 곳에서 사천왕사왓소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사천왕사왓소축제에서의 '왓소(ワッソ)'라는 말은 한국어의 '왔다'라는 의미로, 일본에서 마쓰리를 할 때 '왓쇼이(ワッショイ)'라고 구령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왓소'가 어원이다(홍윤기,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텐노지 왓소 마쓰리'의 명칭을 한국어 표기인 '사천왕사왓소축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천왕사왓소축제는 1990년에 창설되었고 그 후 NPO법인 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가 주체가 되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http://www.wasso.net>). 이러한 사천왕사왓소축제는 고대의 국제교류를 현대로 재현, 아시아 상호의 우호·교류 촉진과 오사카의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

1) 1차 조사는 2008년 10월 5일에 충청남도 부여에서 열린 백제역사문화행렬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2차 조사로 2009년 5월 8일에 백제역사문화관에 방문하여 축제복식담당자(안중완)와 인터뷰 및 복식촬영을 하였다.
2) 축제복식의 색상을 서술함에 있어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잠재하는 색채언어를 발굴하여 현대적인 문맥으로 복원한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 제2차 시안』에 수록된 색명으로 설명하였다.

는 것을 축제의 목적으로 한다(NPO법인 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 2007).

2007년 사천왕사왓소축제는 11월 4일 문화의 날에 ‘우정은 1,400년의 저편에서’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축제의 행

사내용은 전시행사, 시연·체험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심 프로그램은 퍼레이드인 ‘순행·교류최사(巡行·交流催事)’ 이므로, 행렬 중에 백제시대 인물이 착용한 축제복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1〉 백제역사문화행렬과 순행·교류최사의 행렬복식 재현 양상

분류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	
백제역사문화행렬				
	역할	위덕왕	위덕왕비	관원
	복식 품목	포, 바지, 저고리, 오라관, 이식, 경식, 부채, 목화	포, 치마, 저고리, 오라관, 이식, 경식	포, 바지, 절풍, 목화
	형태		직령포	
	색상	적색·자색	적색·자주색	적색
	소재	폴리에스테르	공단	폴리에스테르
순행·교류최사				
	역할	성명왕	성명왕비	단양이
	복식 품목	포, 바지, 저고리, 오라관, 과대, 요패, 목화	포, 치마, 저고리, 과대, 이식, 경식, 표	포, 바지, 저고리, 금제관식, 오라관, 목화
	형태		직령포	
	색상	다자색·두록색	적색·흑색	분홍색·설백색
	소재		양단	

3) 1차 조사는 2007년 11월 4일에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에서 열린 순행·교류최사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2차 조사로 2008년 1월 30일에 축제협회에 방문하여 축제복식담당자(노구찌:野口)와 인터뷰 및 복식촬영을 하였다.

순행·교류최사의 축제복식은 오사카에 위치한 NPO법인 오사카와소문화교류협회의 복식 및 소품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순행·교류최사에서 보이는 신분별 복식은 총 5종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백제문화제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축제복식인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으로 선별하여 조사³⁾·정리하였다.

순행·교류최사의 군왕복은 성명왕-백제왕경복-백제왕선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왕경복과 백제왕선광은 일본복식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명왕⁴⁾ 역할의 축제참여자가 착용한 군왕복의 포는 다자색(茶紫色) 양단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길과 소매 전체에 금사로 와전 문양이 자수로 제작되었다. 포는 겹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감은 흑색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다. 포의 총길이는 바닥에 끌리는 긴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수구에 흑색 소재로 가선을 둘렀다. 포 안에는 두록색(豆綠色)의 금사 양단 소재로 제작된 포를 착용하였는데, 포의 깃과 도련에 적토색(赤土色) 소재로 가선을 대고 그 위에 원형의 와전(瓦塼) 문양을 수놓은 형태이다. 겉에 입은 포는 겹섶을 여미지 않은 채 걸쳤지만, 안에 입은 포는 우입으로 여미 겹포의 가선과 같은 소재로 제작한 대를 둘러 허리 뒤에서 매듭지어 묶은 형태이다. 대 위에 금속판을 연결하여 만든 과대와 요패를 착용한 모습이다. 두식으로 인동당초문을 투조하여 만든 금제관식이 좌우로 달린 오라관을 쓰고 있으며, 이식이나 경식 등의 장신구는 없었다. 신은 흑색 가죽 소재로 되어 있으며, 발끝부터 발목까지 중심선에 백색 가죽으로 파이핑(piping) 처리를 한 목화 형태이다.

성명왕비 역할의 축제참여자가 착용한 왕비복의 포는 적색 금사 양단을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길과 소매 전체에 봉황 문양이 직문되어 있다. 포의 구성은 겹으로 제작되었고, 안감은 청색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하였다. 포는 총길이가 발등을 덮는 길이이며, 깃과 도련 둘레 및 수구에 흑색 가선을 둘렀고, 가선에는 봉황문과 기하학문을 금박한 형태이다. 허리에는 대를 두르지 않고 금속제의 과대를 하였다. 치마는 길이가 바닥까지 길고 주름이 많은 풍성한 색동치마 형태로, 백색·홍색·청색·녹색의 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신구로 이식은 꽃 모양의 금판 장식이 연결된 귀걸이를 하였으며, 경식은 다양한 형태의 금판 장식이 연결된 화려한 목걸이를 하였다. 성명왕비 복식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이마와 양 볼에 홍색 연지화장을 하고 있으며, 흑색 견소재로 폭이 좁은 긴 천을 목에 둘러 앞에서 매듭지은 형태인데,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표(暇)와 비슷한 형태이다.

순행·교류최사의 행렬에서는 관원복이 단양이⁵⁾-왕인-

아직기의 순서로 등장하였다. 단양이(段楊爾) 역할의 축제참여자가 착용한 관원복 또는 분홍색 양단을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길과 소매 전체에 꽃문양이 직문되어 있다. 포는 겹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감은 분홍색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다. 총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수구에 회색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가선을 둘렀고, 가선에는 원형의 기하학 문양이 수 놓여져 있다. 포는 좌입으로 여미 금속 과대를 허리에 둘러 착용한 모습이며, 포 안에는 설백색(雪白色)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된 바지와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두식으로 인동당초문을 투조하여 만든 금제관식이 좌우로 달린 오라관을 쓰고 있으며, 이식이나 경식 등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신은 흑색 가죽 소재로 되어 있으며, 발끝부터 발목까지 중심선에 백색 가죽으로 파이핑을 한 목화를 착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과 일본의 축제 행렬에서 나타난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의 재현 양상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3. 축제 속 백제행렬의 재현복식과 백제시대 원형복식의 비교분석

현대 축제에 나타난 군왕의 복식은 가장 높은 신분인 만큼 복식의 품목이 다양하고, 소재와 색상이 화려하며, 형태 또한 포의 길이가 길고 품이 크게 착용되고 있었다. 또한 군왕은 가마나 배수레에 탄 채로 행렬에 등장하기 때문에 포의 길이 정도와 바지, 신 등은 행렬에서 축제관람자들이 자세히 볼 수 없는 복식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백제 군왕 복식의 원형을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로 유추해 보면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착용하였고, 특히 바지는 개구고(開口袴)로 통이 넓고 밑단에 선을 두른 청금고(靑錦袴)였을 것이다. 바지 저고리 위에 자색의 직령대수포를 착용하였고, 이러한 복식의 소재는 금, 라와 같은 견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백색 소피대(素皮帶)를 하고 그 위에 과대와 요패를 둘렀으며, 오위리(烏韋履)를 신고, 장신구로 이식을 착용(三國史記, 卷 第24)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축제에서 나타난 군왕의 복식을 백제복식 원형과 비교해보면 구성, 소재, 색상, 형태, 착용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축제복식에서 군왕 복식은 각 축제마다 복식 구성 품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축제복식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행렬의 의미와 연관성이 없는 부채 등을 군왕 복식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4) 성명왕(聖明王)은 『日本書紀』에 기록된 성왕(聖王)의 다른 이름이다.

5) 단양이는 무령왕 13년(513)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최초의 오경박사(五經博士) 중 한 명이다.

소재와 색상의 경우, 군왕의 복식이기 때문에 화려함만을 강조한 나머지 군왕 복식의 원형과 일치하지 않은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였다. 축제복식은 실용적·경제적인 측면에서 폴리에스테르나 합성섬유사가 섞인 공단, 양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백제관련 고문헌에서 채백(採帛), 견(絹), 면포(綿布), 검포(鎌布), 청금(靑錦), 오라(烏羅) 등의 직물 용어가 확인(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되고 있으므로, 군왕 복식의 소재는 금(錦), 라(羅)와 같은 견직물로 재현하여 사용해야 한다.

군왕 복식의 형태는 포의 품이나 길이, 장신구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군왕 복식을 착용하는 축제참여자자의 신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포의 품과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백제복식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수포(舊唐書, 卷199上)가 아닌 통수형의 소매도 많았다. 관모의 금제관식 위치는 관전후입식(冠前後立飾), 관좌우입식(冠左右立飾)⁶⁾, 관전쌍입식(冠前雙立飾)⁷⁾ 등으로 아직까지도 학자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무령왕의 관식은 출토 당시 한 쌍이 머리 부위에서 거의 포개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86)고 한다. 또한 금제관식 2매는 영락(瓔珞)이 달린 면을 전식(前飾)은 하면(下面)으로, 후식(後飾)은 상면(上面)으로 하여 거의 포개진 채 발견되었는데 2매의 높이·폭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고도 한다. 그렇다면 관식을 겹쳐서 관의 앞면에 꽂았거나 전후에 꽂았다고 볼 수 있지만, 출토물의 배치상황을 고려하면 전후입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모자에 꽂았던 두개의 관장식이 높이와 폭 등의 크기가 서로 다르며, 달개장식이 달린 부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포개진 채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출토당시 위에 놓였던 크기가 큰 관장식이 관모의 뒷면에 배치되고 조금 작은 관장식이 관모의 앞면에 배치되었을 것이다(박선희, 2008). 따라서 백제복식 원형의 관식은 관전후입식(冠前後立飾)으로 보는 견해와는 달리, 현재 축제복식에서 관전후입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관전쌍입식과 관좌우입식으로만 표현되고 있었다.

착장방식의 경우, 저고리와 바지를 기본으로 착장하고 포를 덧입은 방식인데, 축제복식에서 군왕복 또는 우입으로 여며 대를 매거나, 포 위에 포를 걸쳐 입은 방식 등이 있지만, 출토유물에서 과대와 요패가 확인되는 바 포 위에 소피대를 하고 과대와 요패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축제에서 나타난 왕비의 복식은 군왕의 복식과 마찬가지로 복식의 품목과 장신구가 다양하고, 소재와 색상이 화려하

게 부각되었다. 또한 왕비도 가마나 배수레에 탄 채로 행렬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포의 길이 정도와 치마, 신 등은 행렬에서 축제관람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백제복식 원형 중 왕비 복식은 문헌자료와 유물자료, 군왕의 복식 원형으로 미루어 보면 치마 안에 속바지를 입고,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착장하였으며, 치마는 길이가 긴 주름치마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왕비복의 착용은 치마 저고리 위에 대수포를 입었고, 이러한 복식의 소재는 금(錦), 라(羅)와 같은 고급견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식으로 소피대를 하고 그 위에 과대와 요패를 들렀으며, 오우리를 신고, 장신구로 이식, 경식, 팔찌 등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왕비의 관식은 군왕의 관식과 마찬가지로 무령왕릉 출토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제관식이 전후로 부착된 관모를 썼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비가 착용한 복식을 백제복식 원형과 비교해보면 품목, 소재, 색상, 형태, 착장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왕비 복식은 장신구들로 인해 복식의 품목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표 등을 왕비 복식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고증된 축제복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왕비 복식의 소재와 색상의 경우, 축제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왕비 복식의 원형과 일치하지 않은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군왕의 복식이 대자수포였으므로 왕비의 포 역시 자색이었을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현대 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비의 적색포는 고려시대 왕비 복식 색상과 혼동하여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비가 착용한 포의 품과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식과 경식과 같은 장신구 역시 출토유물과 유사한 형태가 아닌 현대적인 소재와 디자인의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특히 왕비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상인 관을 쓰지 않고 있다. 착장방식의 경우, 저고리와 치마는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포를 덧입은 방식인데 군왕의 출토유물에서 과대와 요패가 확인되는바 왕비 역시 군왕과 동일하게 포 위에 소피대를 하고 과대와 요패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축제에서 나타난 관원의 복식은 기본적으로 바지, 저고리, 포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모의 형태, 포와 대의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관원의 복식제도(三國史記, 卷 第24)에 맞추어 관원복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로 보이지만, 절풍이나 금화관 등을 착용하고 있어 관위

6) 관좌우입식 견해는 왕과 왕비의 관식이 2매씩 출토되었으므로 관모의 좌우에 붙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내침이 되게 할 경우 두개의 관장식을 서로 다른 크기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7) 관전쌍입식 견해는 관식 2매를 앞뒤로 겹쳐 관의 앞에 고정해 부착시켰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관모의 앞부분에 서로 겹쳐 꽂았다면 두개의 관장식 경부(莖部)의 아래 부분이 달개장식이 달리지 않은 뒷면을 향하여 구부러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진 관식이 포개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와 시대에 따른 복식 고증 및 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백제복식 원형 중 관원의 복식은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특히 『삼국사기』 및 다양한 중국문헌에 품계에 따른 공복제도(周書, 列傳41, 北史, 卷94, 隋書, 卷81)가 기록되어 있어 향후 축제복식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신분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원복은 남자복식의 기본 구조인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직령의 포를 착용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포 위에 관위에 따른 색상의 대를 허리를 여미고, 은제 과대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의 기록에 은화관식(隋書, 卷81)이 나타나므로, 관원의 관모는 백제 고유의 관모 양식인 역삼각형 관모(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또는 오라관을 쓰고 은화관식을 부착하여 권위를 나타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축제에서 착용하는 관원 복식을 백제복식 원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복식의 소재, 색상, 형태, 착장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행렬에 등장하는 관원의 신분이 확실했던 사천왕사왕소축제에서도 좌우입식으로 금제관식을 부착한 오라관을 사용하고 있어 공복제도에 따른 관원의 복식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원복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와 합성사가 섞인 양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문헌에서 나타난 백제관련 직물명칭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것은 견직물이므로, 관원복도 천연섬유인 견직물로 제작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상에 있어서도 문헌에서 관원복의 색상이 관위에 따라 자색, 비색, 청색 등으로 기록(三國史記, 卷第24)되어 있음에도 실제 축제 행렬에서는 적색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포를 혼용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일부 축제에서 착용하는 관원 복식은 품계에 따른 색대(色帶)를 표현하고자 다양한 색상의 대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색상의 대가 대부분이었다.

축제복식에서 관원 복식의 형태는 바지통의 여유분과 밑단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백제사신도에서 보이는 바지처럼 대구고(大口袴) 형태로 제작하여 착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착장방식의 경우, 저고리와 바지는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포를 덧입은 방식인데 포의 착장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헌에서 관직에 따른 대의 색상(周書, 列傳41, 北史, 卷94, 隋書, 卷81)과 출토유물에서 은제 과대가 확인되므로 포 위에 대를 매고 은제 과대를 복원하여 착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운동화를 신거나 포 아래에 전통복식이 아닌 일반바지를 입는 등의 착장방식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IV. 축제복식으로 활용 가능한 백제복식 디자인 제시

역사적 재현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통복식을 정확히 고증하여 재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축제 행렬의 배경과 의미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각도에서 시대복식을 고찰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화재의 디지털화를 통한 복원(최몽룡, 1982) 및 재생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복원이란 문화원형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문화재를 과거의 사료와 고증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다. 즉 컴퓨터 그래픽이나 3차원 공간성에 상호작용 구현이 가능한 가상현실, 또는 빛이 투사되는 홀로그램 등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여 문화재를 본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http://brcr.kongju.ac.kr/main.htm>).

이에 본 장에서는 현대 축제의 재현복식과 백제시대 원형복식과의 비교분석 결과와 현존하는 유물자료와 문헌자료를 근거로, 축제에서 활용 가능한 신분별 백제복식 디자인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3D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1. 군왕복

『삼국사기』,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의 기록에서 “왕은 소매가 큰 자주색 도포에 푸른 비단바지를 입고 오라관에 금화로 장식하며, 흰 가죽띠에 흑색 가죽신을 신는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군왕의 기본적 복식 구조는 유고(襦袴) 위에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포를 착용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군왕의 자대수포 속에는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에 기록된 복삼(複衫)이라는 국속의 저고리와 바지를 기본으로 착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대수포의 소매넓이는 넓다고만 되어 있어 그 넓이를 추정하기가 애매하나 군왕이 입은 포이므로 매우 넓은 형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포 아래로 바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왕이 입은 포의 길이는 무릎 아래로 바지의 형태가 보일 정도의 길이였으며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길이는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에서는 백제왕의 바지를 특별히 청금고라 하였는데, 이는 청색바탕에 무늬가 새겨진 금직물로 만든 바지를 뜻한다. 이러한 청금고는 《양직공도》에 나타난 백제사신의 바지처럼 개구고(開口袴)로 통이 넓고 밑단에 선을 두른 것으로,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 도들에 나타난 관고(寬袴) 착용방법인 발목부분을 조이는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이 넓은 바지는 고구려의 대구고(大口袴)·태구고(太口袴)·고대구(袴大口) 등의 바지 형태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며, 백제왕의

청금고 또한 통이 넓은 바지 형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시대 군왕 복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구성은 삼국시대 복식의 기본형인 저고리, 바지, 포로 하고 관모와 신, 그 외의 장신구이다. 이에 축제복식으로 군왕의 저고리는 우입으로 여며 대를 둘러서 고정하고 바지허리는 저고리 길이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고무줄 처리를 해서 착장하기 편하도록 제작한다. 포는 대수의 직령포로 하고 품을 넉넉하게 하며, 길이는 신장 175cm 남자 기준 무릎 바로 아래 정도로 제시한다. 여밈은 우입으로 하고 백색 가죽띠를 한 다음, 그 위에 과대와 요패를 두르게 한다. 군왕복은 여기에 관모로써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군왕의 금제관식을 전후로 부착한 흑색 라관을 쓰고, 리 형태의 흑색 가죽신을 신도록 한다. 장신구로는 무령왕릉 출토유물인 군왕의 귀걸이와 동일한 형태의 귀걸이를 귀에 거는 방식으로 하여 착용한다.

소제는 군왕을 상징하는 용문양⁸⁾을 원형으로 형상화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직조한 견직물을 사용하고, 선단(線段) 소재도 용문양을 직조한 흑색 견직물로 한다. 용문양은 생명의 신비, 자연의 힘과 창조의 영광을 의미하며, 백제의 용문양은 무령왕릉 출토 금은계 팔찌와 요패, 환두대도, 동탁은잔 등에 나타난다. 또한 견직물은 고가의 직물이며 관리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합성섬유로는 전통복식이 갖는 고유한 실루엣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천연섬유인 견직물로 고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상으로 포는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의 기록에 나와 있는 자색으로 하고, 바지와 저고리는 청색, 선단과 라관, 신은 흑색으로 한다. 전통색상의 표현방식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 제2차 시안』에 수록된 Munsell값을 색이름 검색팔레트(<http://www.koreacolor.net/color/color.asp>)를 이용해 RGB, CMYK, 16진수로 변환하여 디지털화하였다.

제작방법은 포와 바지, 저고리 모두 겹으로 제작한다. 상의는 앞여밈에 호트림이 없도록 깃 안쪽에 벨크로(velcro)를 달아 주고, 행렬 시에 포 자락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여밈 안쪽에 스냅단추를 부착한다. 포는 옆솔기 허리선에 실고 리를 부착하여 대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대와 과대가 흘러내림 없이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왕비복

문헌에는 왕비복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출토된 무령왕릉의 유물로 말미암아 관식이 왕의 것과 비슷하다는 면에서 고갈형의 관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백제시

대 왕비 복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구성은 삼국시대 복식의 기본형인 저고리, 치마, 포로 하고 관모와 신, 그 외의 장신구이다. 이에 축제복식으로 안에 착용하는 상의 저고리는 우입으로 여며 대를 둘러서 고정하고, 하의로 포의 밑단과 같은 문양의 소재로 선을 두른 폭이 넓은 주름치마를 입도록 한다. 치마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복장이 고구려와 동일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왕비를 비롯한 여자들은 의례적인 경우, 바지 위에 치마를 착용했으리라 본다. 주변국에서 입었던 치마의 형태를 백제에서도 입었다고 보면 신분 따라 고위층 여자는 주름이 많고 긴치마와 색동치마 등을 입었을 것이므로, 왕비복의 치마 또한 긴 주름치마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름치마 아래에는 속바지를 착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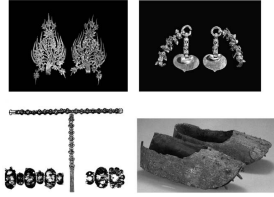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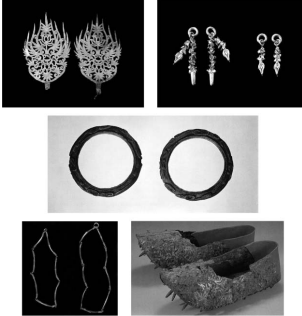







포는 대수의 직령포로 하고 소매와 품을 넉넉하게 하며, 길이는 신장 165cm 여자 기준 무릎 바로 아래 정도로 한다. 포의 여밈은 우입으로 하여 백색 가죽띠를 한 다음, 그 위에 금제과대와 요패를 두르게 한다. 왕비 복식은 무령왕릉 출토 유물 중 왕비의 유물인 금제관식과 귀걸이, 9절목걸이, 톱니문 금제 팔찌를 선정하여 복식 고증에 사용하였다. 관식은 무령왕릉 출토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제관식이 군왕의 관식과 유사하다는 면에서 그 형식은 다르더라도 군왕 관과의 형평 원칙에서 고갈형의 관모가 있었다는 것은 추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복식의 관모로써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금제관식을 전후로 부착한 흑색 라관을 쓰고, 리 형태의 흑색 가죽신을 신도록 한다. 장신구로는 무령왕릉 출토 유물인 왕비의 귀걸이와 동일한 형태의 귀걸이를 귀에 거는 방식으로 하여 착용하며, 9절목걸이와 톱니문 금제 팔찌 등 실존유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왕비의 복식에 있어서 소제는 몸판에 작은 쌍조금원문(雙鳥金圓紋)을 직조한 견직물을 사용하고, 선단 소재에는 봉황문을 직조한 흑색 견직물로 한다. 새문양은 지배자의 권위와 상서로움을 상징하므로 봉황문과 쌍조금원문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백제의 봉황문은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 동탁은잔 뚜껑, 식리의 옆면, 왕비의 목제 두침 등에서 나타난다. 왕비의 신분적 위치를 감안하여 복식의 소재는 군왕복과 동일한 견직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왕비복의 포, 저고리, 치마의 색상은 군왕복과 맞추어 자색, 청색으로 하고, 선단과 라관, 신은 흑색으로 한다. 전통색상의 표현방식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 제2차 시안』에 수록된 Munsell값을 색이름검색팔레트(<http://www.koreacolor.net/color/color.asp>)를 이용해 RGB, CMYK, 16진수로 변환하여 디지털화 하였다. 왕비복의 제작

8) 백제시대는 용문양이 군왕의 표식으로 자리 잡기 이전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축제복식으로 활용 가능한 백제복식 디자인은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의 색상이 모두 자색이므로 상징적인 문양으로써 신분의 차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2〉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 디자인의 착장스케치와 3D 일러스트레이션

분류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
소재		견직물	
문양	용문양  	봉황문양  쌍조금원문 	인동당초문양  연화문 
색상	자색 · 청색 · 흑색 · 백색		자색 · 황색 · 흑색
장신구	소피대, 과대, 요패, 오라관, 금제관식, 오우리, 귀걸이	소피대, 과대, 요패, 오라관, 금제관식, 오우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소피대, 은제과대, 역삼각형 관모, 은제관식, 리
형태	직령깃, 넓은 소매통, 넓은 바지통, 넓은 가선	직령깃, 넓은 소매통, 넓은 치마폭, 넓은 가선	직령깃, 넓은 소매통, 넓은 바지통, 넓은 가선
제작 기법	겹으로 제작, 깃 안쪽에 벨크로 부착, 바지허리 고무줄 처리	겹으로 제작, 깃 안쪽에 벨크로 부착, 치마허리 고무줄 처리	겹으로 제작, 깃 안쪽에 벨크로 부착, 바지허리 고무줄 처리
유물 자료			
착장 스케치			
3D 일러스트레이션			

방법은 포와 치마, 저고리 모두 겹으로 제작하며, 축제참여자가 복식을 착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치마와 속바지의 허리에 고무줄을 삽입하도록 한다.

3. 관원복

백제의 관원복은 우선 관식에서 차별을 두고, 포와 대의 색상에서 등위를 가리되, 그 구조 자체는 차별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백제의 관원복은 문헌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계별로 복색과 대색, 관의 형태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백제사신도》 등의 회화자료에서 관원복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원 복식의 기본 구성은 삼국시대 복식의 기본형인 저고리, 바지 위에 포를 착용하고 관모와 신을 신는 것으로 복원한다. 관원 복식은 출토유물인 역삼각형 관모, 은제관식, 은제 과대 등을 선정하여 복식 고층에 사용하였고, 관원의 공복제도가 기록된 문헌자료와 회화자료를 참고로 하여 복식 형태를 유추해보았다. 복식 고층을 위하여 관원의 비품은 나솔 이상의 제1관료급 신분으로 정하였다.

관원복은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지배계급의 표지로서 포라는 것이 예를 갖추어 입을 의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고리만이 아닌 겹옷으로 포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 위에 대로 허리를 여몄을 것이며, 이러한 대는 문헌에서 나타난 대색의 다양성으로 보아 가죽보다는 직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는 우입으로 여며 대를 둘러서 고정하고, 하의로 포의 밑단과 동일한 문양의 소재로 넓게 선을 두른 바지를 입도록 한다.

포는 대수의 직령포로 하고 소매와 품을 넉넉하게 하며, 길이는 신장 175cm 남자 기준 무릎 길이로 한다. 포는 우입으로 여며 자색 대를 하고, 그 위에 은제 과대를 두른다. 백제의 관등제는 관위에 따라 관복은 물론, 허리띠의 색상과 관모의 종류까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식의 사용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제정, 실행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고이왕대에 관등제정, 관직 임명과 함께 의관제도의 제정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기록이나 유물들로 미루어 관식의 제정은 고이왕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보다 후대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을 통해 관식의 착용이 중요한 계도로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관과 관식품은 군왕이나 그에 대응할 만한 지배자의 무덤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특히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는 국제적인 조류 속에서도 백제 고유의 독자적인 양식이 발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백제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역삼각형 관모이다. 역삼각형 관모의 재질면에서 라관과 유사하지만 형태 및 착용 방법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며, 이는 백제 고유의 관모 양식으로 발전되었

다고 볼 수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관원복의 관은 계급에 따라 관의 장식과 색상에 차등을 두었으며, 이에 관원은 라관의 밑받침으로 절풍·소골형의 변형모자의 앞에 역삼각형 관모를 비스듬히 댄 역삼각형 관모도 착용하여, 외모 상으로도 위상을 높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원복의 관모는 백제시대 고유의 독자적인 양식인 역삼각형 관모에 은제관식을 부착하여 쓰며, 여기에 흑색 가죽신을 신도록 한다.

관원의 복식에 있어서 소재는 몸판에 연화문을 직조한 견직물을 사용하고, 선단은 인동당초문이 직조된 흑색 견직물로 한다. 백제의 식물문 중 하나인 인동당초문은 곡선인 줄기에 꽃과 잎 등을 접속시킨 형이며, 무령왕릉 출토 관식과 익산 제석사에서 출토된 암막새에서 인동당초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화문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문양으로 주로 와전에서 볼 수 있으며, 무령왕릉의 전돌, 관식, 귀걸이, 두침, 동탁은잔, 뒤꽂이 등에도 나타난다.

관원복의 포 색상은 『삼국사기』에 6품 이상은 자복(紫服)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자색으로 하며, 대의 색상도 『수서』에 기록된 자대(隋書, 卷81)로 한다. 바지와 저고리의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선단과 라관, 신은 흑색으로 한다. 전통색상의 표현방식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2차 시안』에 수록된 Munsell값을 색이름검색팔레트(<http://www.koreacolor.net/color/color.asp>)를 이용해 RGB, CMYK, 16진수로 변환하여 디지털화하였다.

관원복은 품관에 따라 행렬에서 다수의 축제참여자가 착용하는 복식이기 때문에 복식 제작에 있어 사이즈 교정이 될 수 있는 기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포의 제작에 있어 겹감과 안감의 밑단을 분리시켜 겹옷의 길고 짧음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또한 포의 옆솔기 허리선에 실고리를 부착하여 대를 통과시킴으로써 대와 과대가 허리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상과 같이 축제복식으로 활용 가능한 백제시대 군왕, 왕비, 관원 복식의 착장스케치와 3D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 2>에 제시하였다.

V. 결론

축제복식은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함께 축제의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기능과 유형으로 발달해 왔다. 최근 국가 행정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재현사업 또는 복원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통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복식은 축제의 다양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고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백제문화제와 사천왕사왓소축제 행렬에서 나타난 축제복식 재현양상을 파악하여 백제복식 문헌과 출토유물을 통해 원형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축제에서 활용 가능한 신분별 백제복식을 3D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축제복식에서 군왕과 왕비의 복식은 각 축제마다 복식의 구성 품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한 축제 행렬에서 여러 명의 군왕과 왕비가 등장한 경우에도 복식의 품목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와 맞지 않는 표 등의 장식품을 구성에 포함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소재와 색상의 경우, 군왕과 왕비의 복식은 화려함만을 강조한 나머지 백제복식의 원형과 일치하지 않은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였다. 축제복식은 대부분 실용적·경제적인 측면에서 폴리에스테르나 합성섬유사가 섞인 공단, 양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군왕과 왕비 복식의 소재는 금(錦), 라(羅)와 같은 견직물로 재현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군왕의 복식이 대자수포이므로 왕비의 포 역시 자색이었을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현대 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비의 홍색포는 고려시대 왕비 복식과 혼동하여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축제에서 착용하는 관원 복식은 품계에 따른 색대를 표현하고자 다양한 색상의 대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색상의 대가 대부분이었다.

복식 형태의 경우, 포의 품이나 길이, 장신구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신분에 따른 복식은 품과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군왕 복식의 장신구의 경우, 출토유물 자료가 존재하는 장신구조차 고증에 입각하여 재현한 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착장방식의 경우, 저고리와 바지는 기본으로 착장하고 포를 덧입은 방식인데 포의 착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축제복식에서 군왕복 또는 우임으로 여며 대를 매거나, 포 위에 포를 걸쳐 입은 방식 등이 있지만, 출토유물에서 과대와 요패가 확인되는 바 포 위에 소피대를 하고 과대와 요패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한 전통복식의 3D 모델링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주요 디자인에 대한 모델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약간의 변형만으로도 다양한 디자인의 전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소재를 변화시켜 표현하거나 디테일이나 부자재의 탈부착, 특수 소재를 의상에 활용하여 디자인을 변화시키는 작업에는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축제복식 개발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축제에서 착용하는 전통복식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상징으로 그 원형을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8). **백제의 직물**. 부여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1986). **명품도감**. 서울: 삼화출판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1992).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 2차 시안**.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권순정(2001). 몽골 나담축제 경기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2), 124-130.

김은정(2003). Research on the Costume for the Folk Festivals of Chilseok-dong, **한국의류학회지**, 27(12), 1397-1404.

김은정(2005). 한국문화: 축제복식에 관한 연구 -광주 고씨움 놀이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27, 267-287.

김현숙(1995). **무대의상디자이너의 세계**. 서울: 고려원.

박선희(2008). 백제 금관의 유형 추론과 관모장식, **비교민속학**, 35, 411-443.

이희현(1999). 미국의 축제복식과 전통복식, **한국의상디자이너학회지**, 1(1), 17-34.

조은호(1999). 무대의상 및 영상영상 디자인 과정.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몽룡(1982). 고고학에 있어서 복원문제. **인문논총**, 8, 105-119.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1991). **백제무령왕릉**. 공주: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홍윤기(2002). **일본 속의 한국문화유적을 찾아서**. 서울: 서문당.

홍정민(2002). 몽골 나담축제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52(7), 167-177.

NPO법인 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2007). **사천왕사왓소축제 가이드북**.

舊唐書, 卷199上.

南史, 列傳69.

北史, 卷94.

三國史記, 卷 第24.

隋書, 卷81.

新唐書, 卷220.

梁書, 卷54.

周書, 列傳41.

<http://bcr.kongju.ac.kr/main.htm>

<http://www.koreacolor.net/color/color.asp>

<http://www.wasso.net>

접 수 일 : 2010년 12월 13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4일